

Nightscape_story



작성일자: 2024-04-03

작성자: 박천웅

문서 이력

순번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1	박천웅	2024-04-03	목차 구성
2	박천웅	2024-04-04	챕터 1의 S1
3	박천웅	2024-04-12	S2

Index

Index.....	3
스토리 개요	4
등장인물	5
Chapter 1 – 영원한 밤의 망령	7
#S1 : 깊은 밤의 검은 숲	7
#S2: 깊은 밤 학업의 굴레	9

스토리 개요

-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이 공간이 어디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주인공이 유일하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황혼 빛 하늘을 쫓아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
- 전체적인 테마는 깊은 밤에서 시작하여 새벽으로 향하는 분위기가 그려진다.
- 총 7개의 방이 존재하며, 해당 구역을 통과할 때 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진다.
- 아이일때 꿈꿔 왔던 여러 삶들이 냉혹한 사회와 현실에게 부정당하며, 본래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이 세계는 구역별로 시간대가 고정된다. 주인공이 시작하는 곳은 가장 깊은 구역으로 별과 달빛만으로 빛나고 있다.
- 최초의 구역은 학습, 공부에 시달리는 이들을 조명하는 공간. 이곳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직업들의 파편화된 이미지가 적으로 등장해 주인공을 공격한다.
- 2번째 구역은 경쟁, 여러 스포츠 선수들의 삶의 파편화되어 주인공을 막아선다.
- 3번째 기대의 구역은 뮤지션들의 삶을, 4번째 편견에는 패션디자이너, 유튜버, 바리스타, 바텐더, 승려, 신부 같은 삶, 5번째 가난에서는 군인, 소방관, 경찰, 작가, 댄서, 모델 등의 삶, 6번째 상식에선 회사원, 공무원, 경호원의 삶들이 주인공을 막아선다.
- 그 모든 삶들은, 주인공이 한때 꿈꿨던 삶의 파편들이며, 동시에 그의 친구들이 이뤄낸 꿈일 수도 있다.
- 현재의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꿈들의 이미지를 경험해가면서 해가 지는 시간대의 구역, 황혼의 구역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은 분명 그 어릴적 동심과 초심을 본체에게 무사히 전달할 것이다.
- 주인공은 결국 현대인이 현실과 사회에 부딪쳐 잃어버렸던 그들의 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등장인물

- 주인공 : 영원히 깊은 밤인 상태인 구역속에서 배회하던 망령, 기억하나 없이 정처없이 떠돌던 그는 어느 날 태양의 존재를 기억해내고 만다. 태양이 어둠속으로 점차 가라앉아가는 풍경. 그 선명한 이미지가 그의 뇌리에 박히자. 그는 본능적으로 태양을 향해, 태양을 쫓아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자 망령처럼 배회할 때는 보이지 않던,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들이 그의 앞을 가로 막는데...
- 입신양명: 학업의 구역의 최종 보스. 출세 지향적인 사회와 그로인한 천편일률적인 교육, 그 끝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직업들을 보여준다. 주인공을 이 구역에 봉인시킨 원흉이며, 성적이란 이름으로 그에게 강한 압박감을 준다.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마주쳤던 적들의 능력이 랜덤하게 사용된다. 특정 패턴마다 주인공의 회피율에 따른, 혹은 소환한 몸을 제한 시간동안 얼마나 해치웠냐에 따라서 주인공에서 성적(ABCDE)를 먹이고, 해당 성정에 따라서 버프나 디버프를 내린다.
- 약자도태: 경쟁 구역의 최종 보스. 육체적 재능과 충분한 자본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는 이 분야는, 극한의 피지컬을 요구한다. 터프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은 빠른 패턴의 공격들을 추구한다. 동시에 가장 높은 생명력을 지녀서 공격을 신중히 해야한다. 이 보스는 자신을 넘어설 정도의 심기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가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주인공을 막아선다.
- 별의 몰락: 기대 구역의 최종 보스. 음악과 예술의 끝인 스타가 되고 싶었지만 무명이란 멍에 아래 무너진 추락한 별들의 집합체다. 범위형 공격이 특기이며, 때때로 유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을 주도한다. 공격력과 범위는 살벌하지만 보스 들 중에서는 가장 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보스는 주인공에게 선택되지 못한 자들의 절규와 절망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 고정관념: 편견 구역의 최종 보스. 잘 알지 못하지만 편향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인식하는 삶들을 조명한다. 대체로 상대에게 상태이상을 거는 형태의 공격이 많으며, 스스로 회복하는 패턴도 있어서 끈질긴 적으로 등장한다. 이 보스는 고정관념과 편견이란 색안경을 통해 가려진 진실들을 들춰볼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이 보스의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턴마다 등장하는 색안경을 찾음으로서 상태이상을 해제하고 보스의 본체를 공격할 수 있다. 색안경이 없다면, 보스에게는 어떤 공격도 먹히지 않는다.
- 호구지책: 가난 구역의 최종 보스, 비록 큰 부를 이루긴 어렵지만 명예와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을 조명한다.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한 방들을 가진 효과들을 휘두르는 보스다. 다만 위력만큼 쿨타임이 길어 긴 쿨타임 동안에는 많은 수의 몸을 뿌려 버티는 형태의 패턴을 구사한다. 꿈인가 경제적 안정인가, 그 사이에서 주인공을 갈등하게 만든다.
- 고식지계: 상식 구역의 최종 보스, 안정적이거나 보편적으로 사회인으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삶들을 조명한다. 개성을 박탈당한다는 부분만을 감당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삶이라며 주인공을 방해한다. 플레이어의 스킬을 봉인하는 패턴을 주로 사용한다.
- 일면지분: 얼굴 한 번 본적 없어도 이야기를 듣게되는, 이제까지 지나온 삶을 결국 이뤄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마지막 보스. 모든 종류의 몬스터를 7개의 패턴을 통해서 인해전술을 사용하며, 모든

패턴을 파훼할시 엔딩을 볼 수 있다.(7종류의 보스전 모음)

Chapter 1 – 영원한 밤의 망령

#S1 : 깊은 밤의 검은 숲

거대한 보름달의 빛으로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숲길 사이로 아지랑이 같이 흔들리는 그림자가 정처없이 배회한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 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그럴 이유조차도 사고하지 못한다.

이지를 잃어버린 짐승이라 하기엔 최소한의 본능마저 느낄 수 없다.

때문에 이르지, 이 영구히 지속되는 깊은 밤에 자리잡은 검은 숲에 묶여버린 망령이라.

오늘도 어김없이 달 빛이 보여주는 검은 숲길 사이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발걸음이 옮겨진다.

제 형체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서지는 모습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어왔던가.

이곳은 밤이 계속되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본능이었으니까. 잠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걷는 이유였으니까.

그러나 그것 마저도 이제 한계다.

결국, 그 걸음이 점차 느려지고.

"

결국 제 자리에 서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무너지려는 다리를 붙들며 흔들리는 형체 속에서 문득 파편화되어 잊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스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흐려지는 이지 속, 문득 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보름달.

그 빛 속에서 잊었던 광경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가 원래 있던 곳은 이런 영원한 밤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다.

아무리 밝아도 결국 눈앞의 길 만을 비출 뿐, 하늘들 물들이지 못하는 보름달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태양, 그래 그 빛에 녹아 사라진다고 해도, 그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아아, 어째서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걸까?

마치 회광반조가 찾아온 노인처럼, 그의 이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명확하게 돌아온다.

흔들리던 형체가 곧게 서고, 드디어 그의 시야에 이 비틀린 공간이 들어온다.

어찌 세상이 영원히 밤일 수 있을까?

제 형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더 늦기전 해야할 일은 명확했다.

또 다시, 이지도 본능도 잊어버리고 배회하는 망령의 모습으론 돌아갈 수 없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놓칠 수 없다.

[[그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드리고 편히 잠들면 되는 것을...]]

정신을 차리기 무섭게, 공간 전체를 울리는 엄격한 목소리가 진중하게 울린다.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같은 목소리는, 어쩐지 거북한 기분을 들게 만들었다.

고요하던 검은 숲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망령이여, 본래 그대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하라]]

그 어투는 매우 교조적이었고, 강압적이었다.

그림자는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그려지는 듯하다.

무뚝뚝하고 짜증이 가득한 중년의 남성.

머리가 반쯤 희어졌으며, 사각의 뿔테 안경을 끼고 한 손에는 출석부가,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

그래, 언젠가 그의 스승이었던 존재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출세를 하고 싶다면,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한다 말하며 다그치던 목소리.

다 너를 위하는 소리라면서 소리치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이들과 못하는 이들을 명백하게 차별하던 행동들.

그 짜증나던 감정과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림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을 쫓아 가야했다. 이곳에 태양은 뜨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태양이 지던 그 곳으로 나아간다.
그 끝에서 언젠가 보았던 황혼의 저녁 밤하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이전 이곳에 제 발로 들어온 건 너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

망령만이 존재하는 듯했던 숲속으로부터 어쩐지 특정한 직업이 연상되는 인형들이 여기저기서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 그것은 그가 언젠가 꿈 꿔던 모습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그의 앞을 막는 방해물일 뿐.

#S2: 깊은 밤 학업의 굴레

어쩌면 나는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치료를 위한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그래, 꾸준한 학업을 짊어진 상태로 지식을 주입되어야 했던 이유는 분명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그것이 정말 바랬던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혹은 법조계의 사람이 되어서 법치주의의 선봉장이 되어 죄를 선고하고 억울한 이들을 구원하고 죄의 유무를 판결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라면 저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꿈꿨던 직업이 있을지도 모른다.

눈앞의 존재는 언젠가 나를 가르쳤을지도 모를 존재의 얼굴이 가득한 그것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던 보름달이었다.

끝없이 방랑하던 내가, 더 깊게 배회하도록 인도하던 달빛의 근원이었다.

[[기어코 여기까지 기어올랐구나.]]

특유의 못마땅한 목소리로 질책하는 얼굴.

그 시선에 가득 담긴 경멸의 시선(달빛)이 나를 흐리게 만든다.

교조적인 태도로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비추는 듯 홀리는 듯 인도하 듯, 방황하게 만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 모든 나의 선택의 책임을 떠넘겨버린 내 최악의 일면일 지도 모르겠다.

[[좋다. 이왕 되짚어 올라가고 싶다면, 시험을 봐야겠지? 네가 포기하고 도망쳤던 보충 시험의 시작이다.]]

과거의 스승의 얼굴을 한 보름달이 비틀린 웃음을 짓는다.

그래, 저 조소어린 얼굴이 나의 반항심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었지.

예전의 나는 아마 그 반항심을 자기 파괴적으로 풀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야 다시 저 밑으로 돌아갈 뿐일터.

이번엔 마주해본다.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내가 나인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쿵!!!!

세계가 흔들리는 진동이 퍼지며 보름달로부터 나온 빛이 사방을 비춘다.

검은 숲이 흔들리며, 그 모습을 바꿔간다.

그래 숲의 나무라 생각했던 배경들이 자라나면서 공간을 메워나간다.

어느사이에 이곳의 배경은 언젠가 내가 다녔을 학교의 전경이 되었다.

어쩐지 감추고 싶었던 흑역사가 들춰지는 듯한 감각이 전신을 간질인다.

추억이라 말하기엔 기억하기 싫고

과거라고 말하기엔 잊혀지기 싫은

모순된 감정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보름달이 서서히 내려온다.

지금이라면 달을 지도 모른다.

[[시험을 시작하지.]]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고해지는 선언.

동시에 얼굴이 이리저리 뒤바뀌면서 그 모습을 바꾼다.

이내 보름달로부터 거대한 두 손이 등장하고, 한손에는 유봉(막자)가 한손에는 유발(막자사발)이 등장한다.

유봉을 든 손이 움직인다.

마치 도장을 찍어내듯 대지를 이곳 저곳 두들긴다.

황급하게 이리 저리 피해보지만, 올라오느라 지쳤던 몸은 결국 한 대 얻어 맞고 만다.

온 몸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 통증에 잠시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자리에 멈춰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반대손에 들린 유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퍼 담아간다.

손쓸 수도 없이 유발에 들려버린 나는 그대로 유봉에 의해서 이리저리 갈려버린다.

끔찍한 고통에 온 몸이 흩어지는 감각이 들어온다.

이전 싸움으로 지쳤던 몸이 결국 흩어지는 느낌이 들어온다.

-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도 그렇게 ...

그리운 목소리가 들린다.

- 네가 무얼하든, 어디에 있던 너는 우리의

품속에서 작은 구슬이 따스한 빛을 뿜으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 자식이니까.

부모님, 아아, 나의 부모님.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도, 나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흩어지는 정신을 그러모으며 다시 한번 부활한 육신으로 일어선다.

품속의 구슬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다는듯 흩어져 먼지가 되었지만 괜찮다.

그의 상태는 만전이 되었으니까.

[[형편없군. 네 성적은 E다.]]

그러나 직전 공격에 당해서였을까?

한층 더 경멸 어린 목소리로 선언하는 보름달.

그리고 그 순간 온 몸이 무거워지는 감각이 찾아온다.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 느껴지던 좌절감이 발목을 잡아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려 함을 느낀 걸까? 보름달은 이내 다시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번에 보름달이 꺼내 온 것은 거대한 책이었다.

법이란 글자 하나가 책 표지에 박혀 있는 그것은, 법전이었던 것일까?

책이 펼쳐지기 무섭게 책으로부터 책장들이 떨어져 나와 보름달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법은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었다.

이윽고, 회전하던 책장들이 마치 칼날처럼 쇠도한다.

아까보다 한층 느려진 몸으로 피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괜찮다. 나는 잘 될거니까.

이제까진 못해왔을지 모르지만, 이만큼 사랑을 받았다면 그에 부응하기라도 해야 최소한의 도리는 이를 수 있을 테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걸.

쇄도하는 책장의 숫자만큼 서서히 들어난 보름달에게 날아오른다.

짜증나는 저 덩어리에 울분을 담아 걷어찬다.

이번엔 다행히 성공할 수 있었다.

[[흠,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었나? 그러나 너무 오래 걸렸다. 네 성적은 C다.]]

다시금 체점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엔 다행히도 이전과 같은 좌절감은 사라졌다.

신체 능력이 제 상태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보름달의 빛은 쇠하지 않는다.

힘든 시간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보름달의 모습이 다시 변하기 시작한다. 이번에 보름달이 꺼내 든 것은 서슬퍼런 날이 빛나는 거대한 검이었다.

검사가... 그 검사였냐고...

이전 올라오다가 마주쳤던 나의 미래였을지 모를 조각들을 봤을때도 생각했던 거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은 장난감 칼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검은 장난감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크고 너무 날카로워 보였다.

죄인이라 선언하는 듯한 호쾌한 검격이 그어진다.

빠르게 피할 수 있었지만, 내가 밟고 있던 발판이 잘려나가는 것이 생생하게 보인다.

저건 잘 못 맞으면 순식간에 갈 수 있다는게 명확하다.

흐를리 없는 식은땀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렇지만, 아까전의 칼날비에 비하면 휘둘러지는 속도가 빠르진 않다.

시간을 끌어서 밝을 발판들이 사라지기전에 신속하게 달에게 접근한다.

이번엔 가로로 날아오는 칼날을 피해 점프한뒤, 그대로 공격을 하지만 이번엔 빗나가고 만다.

아니, 그 뒷면의 벽을 박차고 다시 한번 공격한다.

과연, 이런 변칙성은 미처 생각지 못했는지 그대로 공격을 허용한다.

[[중군, 훌륭한 공격이다. 이번 성적은 A, 이렇게만 해보도록]]

몸에 힘이 들어간다. 어쩐지 움직임이 한 층 가볍고 주먹에 더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그래, 가물가물한 기억이지만 어쩐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 감돈다.

과연, 그래도 성적을 매기는데 사감을 넣는 편은 아닌가보다.

어쩐지 경멸어린 시선의 강도도 적어진 기분이다.

이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에 고양된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모두 가릴 거 같은 거대한 망치를 보고 금세 자취를 감췄다.

법봉의 형상을 한 거대한 망치가 내려 쳐진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망치가 내려쳐지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아무 것도 없는 바닥을 향해서 내리 쳐지는 거대 법봉, 달의 앞에서 휘둘러지는 망치의 크기에 이전까지와 다르게 달에게 직접 접촉할만한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땅!

청명히 울리는 소리, 그러나 소리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무엇을 위한 일인가?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법봉이 다시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온다. 급할 것은 없다는 의도가 보여 진다.

저 법봉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

본능적인 감각을 믿고 몸을 날린다.

공격 대상은 달이 아닌 떨어지는 망치다.

있는 힘껏 점프해서 법봉을 밀어낸다.

첫번째는 선언

두번째는 이의

세번째는 판결

어렵 풋이 기억하는 의미를 기억하며 상대의 결정에 반항한다.

과연, 몸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는 않지만 충분한 높이로 법봉이 물러간다.

그러면서도 울컥 억울한 느낌이 들어 달을 노려본다.

다른 곳은 어떨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나라에서 판사는 법봉을 안 휘두른다고!!! ”

[[중요한건 상징이지, 고증이 아니다.]]

무감정해진 달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며 법봉의 형상이 사라진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않군, 네 성적은 B다]]

몸에서 느껴지던 고양감이 조금 줄어든다. 자신감이 넘치지는 않지만 어디가서 꿀릴 이유는 없는 기분이다.

분명 나쁘진 않은 결과인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다.

그러나 그런 감흥을 느낄 틈도 주지 않겠다는 뜻 인지, 다시 모습을 바꾼 달이 공격을 재개했다.

이번에 나온건 두마리의 뱀이 휘감긴 지팡이.

지팡이를 내려 찍기 무섭게 두마리의 뱀이 지팡이로부터 풀려나와 몰아치기 시작한다.

위 아래에서도 동시에 짓혀드는가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바닥에서 솟구치기도 하면서 들이닥친다.

아가리를 벌리는 뱀의 독니는 촉촉하게 젖어있어 한층 위험성이 높았다.

그렇지만 괜찮다.

이럴때를 위해 챙겨왔던 물건이 있으니까.

한 때 풍부했었을 나의 파편, 잃어버린 상상이 손안에서 피어나며 주변을 돌아다니는 구체를 형성한다.

이윽고 접근하는 뱀의 머리와 부딪치며 비산하고, 폭발에 휘말린 뱀은 그대로 소멸한다.

모든 뱀을 마무리하고 달을 바라보면, 어느새 지팡이는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니...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습군, 했어야 할 때 안하고, 늦어버렸을때 하려하다니]]

냉소섞인 말을 뱉는 달은, 생각보다 차분한 어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출세를 위한 가장 쉬운 길은, 끝없는 학습과 노력. 성공하는 삶의 왕도란 그런것이지.]]

달의 근처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들이 뭉치며 형상을 그려낸다.

수백개에 달해 보이는 분필무리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천천히 총알처럼 회전하기 시작한다.

[[너는 이미 자격이 없다]]

그럴리 없지.

인생에 왕도가 있을리가.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자격요건 따위가 필요할리 없다.

그러니까

“니가 하는 소리는 전부 개소리다 이거야!”

쏟아지는 분필의 탄환들을 헤쳐나간다.

한 발 한 발이 총알처럼 짓혀들지만, 손발로 쳐내면서 비틀거리듯 솟구친다.

이제는 상당히 지상에 가까워진 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래, 언젠가는 이걸 못하고 그대로 굴복한 적이 있었지.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

그치만, 그런건 내가 아닌걸.

난 내가 요절할 팔자인 줄 알았다고.

모든게 말야, 다 간단하다고 믿었지.

나에겐 아직 딸기향 해열제 같은 환상적인 해결책이 없지만.

최소한,

“너 같은 놈들은 불지르고 올라갈 수 있어. 아직, 내 빛은 꺼지지 않았으니까.”

[[그래, 졸업이다. 얼간이 제자야]]

그런 목소리를 들었던거 같기도 했다.

그러나 뒤돌아 볼일 따윈 없다.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니까.